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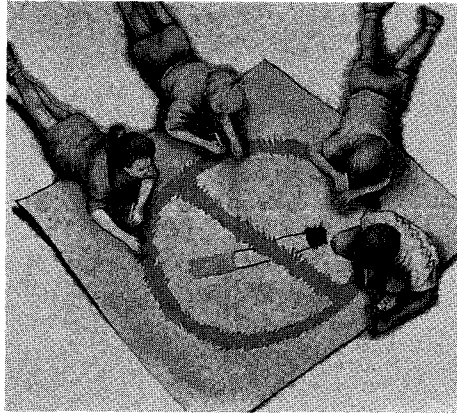
## 오늘의 십대는 내일의 고객

### 적절한 문제대응방식

흡연의 치명적(致命的)인 폐해는 이제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그것은 그 폐해를 모르기 때문에 금연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 때문이다. 더

군다나 한창 감수성 예민하고 반항적이며 사춘기를 보내는 청소년기는 그러한 금연의 소리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공허하고 부차적인 사항들로 치부되기 쉬울 것이다. 공부가, 학업성적이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사고 난관이기에.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접한다.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에 관한 정확한 문제점을 짚어내고 거기에 걸맞는 대응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두루뭉실하게 피상적이며 대충주의



로 흘러서는 문제의 확실한 해답을 도출해 낼 수 없음은 매우 당연하다.

흡연문제, 청소년 흡연문제의 해결은 더욱 그러하다. 생각해 보라. 어느 한 학생의 흡연시작의 동

기와 시기, 흡연의 정도 등은 다양할 것이다. 나는 왜, 어떤 이유에서 담배를 피우게 됐고 하루에 얼마 정도를 피우고 있음은 다양하기에 흡연문제 해결의 접근방식도 몇가지로 분류해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에 그저 단순히 한가지의 학생금연지도(그것도 일과성인)만으로는 학생흡연을 근절시키기에 부적절하다.

다시말해 한가지만의 똑같은 방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생, 청소년 흡연군(群)을 몇가지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 청소년 흡연층의 네가지 분류

첫째는, 소위 말하는 불량학생. 청소년 폭력집단, 본드나 가스, 환각제 등을 찾는 선도가 절실한 사회 일탈적인 청소년 흡연군이다. 이들에게는 단순한 금연교육과 지도로 금연을 이끈다는 것이 솔직히 이미 물건너간 얘기일 수 있다.

그 학생들에게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담배, 라이터를 압수한다거나 반성문을 쓰게하고 금연교실을 열어 흡연의 폐해를 들려주고 봉사활동을 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선생님의 열성과 학교의 손을 떠난 문제가 될 소지가 농후하다.

각종 청소년 문제와 사회문제 등과 연계된, 이미 그것은 국가,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여진다. 그들은 학교내에서 아마 극히 일부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터부시해서는 안되겠다는 점이 이 문제의 난제이다. 역시 이들은 향후 성인이 되어서 계속적인 흡연층을 형성할 것이다.

둘째, 아마 다음의 흡연군이 청소년 흡연층의 대표성을 떨 것이며 가장 많은 청소년 흡연군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말하는 모범생과는 거리감이 있고 공부에도 별 관심이 많지 않고, 놀기 좋아하며, TV, 잡지 등의 대중매체에 관심이 많고 상당부분 그것에 노출되어 있어 연예인들이나 기타 대중 인기 스타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민감한 흡연층이다. 그들은 심성이 착하다.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답답한 자신의 현실에 막막해 하기도 한다. 그래서

탈출구의 하나로 담배를 입에 물기도 하는 것이다. 그들은 호기심도 많고 같은 처지의 또래들과 어울리기에 담배를 피우며 품을 잡는다.

그런데 금연의 희망(?)이 보인다. 학교에서 잘만 지도해 준다면 그들은 가슴으로 느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금연교육과 선생님들의 정성어린 금연지도는 이런 흡연학생들을 금연으로 이끌 수 있음은 충분하다고 본다.

셋째, 개인의 성격과 성질, 내재된 근원적 본성(?) 등에 기인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과 학교교육의 문제와 모순 등에 민감한 일부 학생들. 그들은 자기를 둘러싼 학교환경에 반항심을 갖고 자유의지를 생각한다. 그렇기에 그들군의 흡연은 자기정체(正體)성의 확인과 정립의 측면에서의 감성적 내지는 이성적 반항이다. 이들 역시 청소년 흡연층의 일부 소수를 점한다. 당연히 담배는 중독성이기에 이 층은 사회에 나가서도 담배를 피울지 아닐지는 단언할 수 없고 이들 흡연군은 의식의 발로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다른군에 비해 건전(?)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흡연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흡연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에 이 점을 강조한다면 이들 군의 흡연층은 실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점도 많다. 재차 강조하는 것은 흡연은 한 번 손을 대면 끊기가 몹시 어렵기에 이들에게 적절한 금연교육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학생 흡연군을 따로 꼽아 보았다.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의 흡연군은 적다. 흡연 여학생들 안에도 대략 몇가지 부류의 흡연군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눈에 띄게 급격한 여학생 흡연군의 증가는 없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흡연율에 비해 그 심각성은 떨어진다고 본다.

그렇다고 오해없기 바란다. 여학생 흡연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여성 스스로들에게 이런 사회적 제약이 따르기에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에 비해 그 흡연을 수치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할 것임을 논하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있어 임신중의 흡연의 폐해라든가, 흡연이 여성의 피부에 미치는 영향, 배란장애, 생리불순을 설명함은 또하나의 성적차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 시기의 그들에게는 말이다.

흡연이 특히 여성에게 해롭다는 설명보다는 차분하고 끈질긴 애정어린 금연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언론에 보도되는 여학생 흡연문제에 있어 저널리즘의 속성상 여학생들의 흡연에 남성의 시각만으로 그 심각성을 과장 한다든지 여자가 그것도 어린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니 내일 당장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논조로 흘러가 버리는 얘기들은 모두 조심할 대목이다.

흡연의 폐해는 일반적으로 인간이면 동일하다. 여자이므로 안된다는 식의 얘기는 괜한 흡연조장을 가져온다. 여학생 흡연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시선이 지금 필요하다고 본다.

### 오늘의 십대는 내일의 고객?

눈을 돌려 미국의 예를 보자.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거대 담배회사인 R.J 레이놀즈사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흡연을 시작하도록 광고활동을 벌였다는 보도들과 관련, 의회에 대해 미성년자들을 겨냥하는 담배광고를 불법화하도록 촉구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헨리 웨스먼 하원 의원은 1월 14일 캐럴, 윈스턴, 셀럼 등을 만드는 레이놀즈사의 비밀문서들에는 13세 이상의 10대가 담배 관촉의 상대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비밀문서들에 어린이들을 착취하려는 한 담배회사의 계획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74년 레이놀즈사 C.A 터커 부사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비망록에는 "이들 14~24세 연령층은 미래의 담배 시장을 대표한다. 이들이 성장하면 앞으로 최소한 25년은 담배 총 판매량의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돼 있으며 이밖에도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도심행사, T-셔츠 및 관련 제품보급 등 담배관촉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회사에게는 청소년들이야말로 '장차 보장된 확실한 돈이 되는 투자 대상'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의 십대는 내일의 고객'이라며 십대 시장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미성년 흡연자의 90%는 십대에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또한 2월 9일 미네소타주와 "블루 크로스 앤드 블루 실드" 보험회사가 필립 모리스와 R.J 레이놀즈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관련 치료비 명목으로 17억 7천만 달러를 청구한 소송에서 공개된 서류에 따르면 '흡연이 수백가지 화학물질을 담고 있는 천연물질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화학적 시스템들 가운데 하나'이며 게다가 담배 제조에는 초산 등 6백종 이상의 첨가제가 사용된다고 밝혔다.

### 금연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

상황은 다르겠지만 미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소년 흡연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고 금연운동에 열성이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흡연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 법의 적용에 있어 꾸준하고 강력한 실천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흡연문제와 청소년 흡연문제를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문제를 들고 나

와서 사회 이슈화 시킴은 물론 전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금연의 지름길 및 시초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성인흡연율은 세계 최고이면서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금연을 강조하는가? 지금 당장 TV 드라마를 켜 보자. 많은 장면들에서 흡연하는 모습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흡연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를 강력 보완하면서 사회에서 먼저 금연분위기를 낼 수 있을 때 우리의 청소년들도 금연지도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IMF 구제금융시대!, 한숨만 늘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담배를 다시 찾는다고 한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일수록 건강이 재산이다. 담배연기에 자신의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고 해도 그래도 담배를 피울 것인가.

-서정원-

자료인용 (NEWS WEEK '97.9.2  
중앙일보 '97.10.27)